



제목	Iran: A Modern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7. 10. 24.
저자	Abbas Amanat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1,000
ISBN 또는 ISSN	978-0300112542

#### 내용 요약

이 책은 현대 이란을 형성하는 사건, 사람,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역사서이다. 책에서 현대의 개념은 고대 페르시아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16세기 후반 사파비조의 성립과 시아 이슬람을 국가의 종교로 삼는 시기부터 시작하였다. 또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의 카자르 시대를 거쳐 1970년대의 이슬람 혁명, 1980년대의 이란이라크 전쟁까지 포함하고 있다. 책은 이란의 다양한 사회, 경제, 혁명, 내전, 외국 점령과 지배, 이슬람공화국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담고 있다. 또 문학, 음악, 예술, 이데올로기와 종교, 경제,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유산 등 주제별로도 접근하고 있다. 이란의 문화와 정치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까지 소개하고 있다는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 “시아의 제국”에서는 시아파와 사파비조의 혁명, 압바스 1세와 사파비제국의 형성, 붕괴 과정을 담고 있다. 2부 “지배 영토의 재형성”에서는 카자르조의 성립, 나세르 알 딘 샤의 시대, 입헌 혁명을 서술하였다. 3부 “민족 재구성”에서는 1차 대전과 레자 샤의 권력 장악 과정, 팔레비조의 성립, 혼돈의 민족주의와 오일 민족주의, 백색 혁명과 반대파, 권위의 문화와 분열의 문화 등을 설명하였다. 4부 “경쟁적인 혁명과 이슬람 공화국의 성립”에서는 이슬람 혁명의 과정과 법학자와 그 옹호자들, 이슬람 공화국의 강화, 이란이라크 전쟁과 그 영향, 이슬람 공화국 치하의 사회와 문화를 서술하였다. 현재의 이란은 점검과 균형의 통치를 한 페르시아와 달리 성직자계급의 일방적 우세에 있다.